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12월 3일(주일) 제1174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진은 지난해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12월 11일~1월 20일 모든 캠퍼스 오전 5시 20분 이재훈 담임목사 설교

‘2018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된 다. 12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오전 5시 20분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의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이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주별 주제에 따라 말씀이 선포된다. 첫째 주(12월 11~16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둘째 주(12월 18~23일)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주(12월 25~30일) ‘그리스도 안에서’, 넷째 주(1월 1~6일) ‘그리스도 아래서’, 다섯째 주(1월 8~13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섯째 주(1월 15~20일) ‘그리스도처럼’이 주제다. 설교는 이재훈 담임목

사가 한다.

요일별 중보기도도 한다. 월요일 나라와 민족, 화요일 차세대, 수요일 선교, 목요일 교회, 금요일 가정, 토요일 통일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특순도 풍성하다. 주사랑, 주향한, 주의빛, 주임재, 주경배, 위심파이어, 포에버성가대, 권사성가대, 장로합창단, 온사랑합창단, 남성합창단, 뮤지컬찬양팀 등 온누리교회 찬양팀이 총 출동할 예정이다. 해외비전교회에서는 사차에 따라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동참한다. CGNTV는 40일 동안 새벽기도회 실황을 전 세계에 생중계할 예정이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엔젤트리 주인공을 찾습니다”

17일까지 사연게시판 설치, 사연 접수는 오늘까지 (3일)

2017 엔젤트리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이 뜨겁다. 현재(11월 30일 기준)까지 1491건의 사연이 접수되었다. 지난 주일(11월 26일)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엔젤트리 게시판에 게시된 859개의 사연은 모두 후원연결이 완료되었다.

아직 엔젤트리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기회가 있다. 12월 17일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퍼스 본당과 로비에 엔젤트리 사연게시판이 설치된다. 엔젤트리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는 사연게시판에 게재된 사연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양식에 맞춰 작성한 다음 엔젤함에 넣고, 천사카드를 엔젤트리에 걸면 된다. 이후 사회선교부에서 사연 주인공들의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면 3~5만 원 가량의 선물을 보내주면 된다.

다. 엔젤트리를 통해 성도들에게 이웃들의 사연을 알리고 싶은 성도들은 서둘러 한다. 오늘(12월 3일)까지 엔젤트리 사연 접수를 받는다. 각 캠퍼스 본당과 목회지원실에 구비된 엔젤트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선물 받을 사람의 이름, 성별, 연령, 신청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사연, 전달하고 싶은 선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문의: 02-3215-3358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대학청년부, 사랑앓나눔 시작

서울 11개 지역 810가구,
포항지역 지진구호

대학청년부 사랑앓나눔 행사가 시작됐다. 어제(2일) 대학청년부 요셉, 길, J4U, W, 허브, Pole2 공동체가 도움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 쌀, 반찬, 담요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12월 9일에는 여호수아, SNS, 갈렙, 하늘공동체가 이웃들을 찾아간다.

올해 사랑앓나눔 행사에서는 대학청년부 10개 공동체 소속 청년들이 서울 11개 지역 쪽방촌과 복지관 등 810가구를 찾아가 소외된 이웃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달 예정이다. 포항지역 지진구호도 할 계획이다.

대학청년부부장 김승수 목사는 “청년들이 섬기는 현장에 나아갈 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CGNTV 기독교 IPTV 개국

태국CGNTV가 기독교 IPTV를 통해 태국 전역에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됐다. 태국CGNTV가 지난 11월 30일 IPTV 개국 행사를 열었다. IPTV 개국 행사에는 현지 주요 교단 총회장들과 한인 선교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감사예배, 비전 공유,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타워식 목사(CCT교단 총회장)는 “기독교 IPTV 개국은 태국 복음화에 꼭 필요한 방법”이라며 “태국 기독교 IPTV 채널을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 김영선 기자

제직회

12월 10일 2부 예배 후
대상: 모든 제직
장소: 양재 사랑홀
안건: 2018년 예산안

공동의회

12월 10일 3부 예배 후
대상: 18세 이상 세례 교인
장소: 양재 사랑홀
안건: 2018년 예산안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10년째 돈 한 톨 받지 않고 이주민들을 섬기는 성도가 있다. 주인공은 부천 온누리교회 송인선 다락방장이다. 송 다락방장은 이주민들을 섬기는 (사)경기글로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송 다락방장이 이주민들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0여 년 전 의료선교 차 방문했던 선교지에서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그 일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이주민들에게 어깨 내어준 송인선 다락방장

“저희를 보자마자 한국말로 욕설을 내뱉더라고요.”

그 사람의 눈빛과 말투에는 화가 잔뜩 나 있었다. 순간적으로 터진 화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온 분노였다. 한국인을 경멸하고, 당장이라도 해할 것 같은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 사람은 도대체 왜 한국인들을 보자마자 욕설을 내뱉으며 분노를 폭발했을까.

그 사람은 바로 한국에 일하러 왔던 이주민이었다. 그가 한국에서 일할 때 얼마나 모질게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었으면 한국인들을 보자마자 격노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쓰라렸다. 그러면서 그의 가슴에 사명 하나가 새겨졌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상처받는 이주민이 단 한 명이라도 없게 해야겠다.”

그때부터 송인선 다락방장은 이주민들에게 어깨를 내어줬다.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마음이 조금도 변하거나 퇴색되지 않았다. “이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송 다락방장이 섬기고 있는 (사)경기글로벌센터는 찾아오는 이주민들을 섬기는 일만 하지 않는다. 가나교회, 화성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병원 등지를 찾아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주민들을 찾고 또 찾는다. 그렇게 열심히 섬긴 덕분에인지 몰라도 비자갱신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이주민, 이혼한 전남편에게 도둑으로 고발당한 모녀, 15여 년 전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 수술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 또 다시 한국을 찾은 아프리카인, 몇 년째 출국을 거부하고 외국인보호소에 버티고 있는 불법체류자도 송 다락방장을 만나면 환하게 웃는다.

송 다락방장은 10년째 월급 한 톨 받지 않고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그를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

빈들에 마른 풀 같이

송 다락방장은 원래 잘나가는 자동차 엔진 부품 도매업 사장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이주민은커녕 교회와 예수에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이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17살에 혈혈 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군대를 전역하고 자동차 부품판매점에 취업했는데 특유의 정직함과 똑심으로 고용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젊은 나이에 자동차 부품판매점을 인수해서 사장까지 됐다. 사장이 된 뒤로는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살았다. 집도



송인선 다락방장의 책상에는 우리가 도와야 할 이주민들의 사연이 한가득이다.

사고, 차도 마련하고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사기를 당하고 부도가 났다. 돈만 잃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건강까지 잃어버렸다. 극도의 불안과 공포증을 호소하는 공황장애가 발병했다. 4년을 폐인같이 살았다. 아내는 친정에서 생활하고, 그는 혼자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다. 정말 죽지 못해 살았다. 그에게 자동차 부품판매점을 넘겨줬던 B사장이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B사장이 송 다락방장을 불렀다.

“그때 B사장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저에게 너도 교회에 와보라며 중앙대학교에서 드리는 초신자를 위한 예배에 초대하더라고요. 그 예배에서 들은 찬양 ‘빈들에 마른 풀 같이’가 꼭 제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 예배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동안 꽉 막혀 있던 가슴이 뚫렸다. 말 그대로 죽어가던 사람에게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또 믿을 수 없는 체험을 하고 나서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됐다.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눈앞 가득 빨간 브레이크 등만 깜빡거리는데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기절을 했어요. 공황장애였어요. 이제 죽었구나 싶었는데 눈을 떠보니 차는 갓길에 서있었고, 비상등이 켜져 있더라고요. 누가 도와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적이 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이

후로 공황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방황하고 있을 때 한 선교단체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며 제안을 해왔다. ‘실로암세계선교회’라는 선교회였는데 그 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섬겼다. 동남아시아 11개국에 27개 정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단체였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등지로 의료선교를 다녔다. 그때도 어김없이 의료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현지인이 갑자기 한국어로 욕설을 했다.

두 번 다시 상처받지 않기를

“왜 욕설을 하냐고 물었더니 그 현지인이 자신이 한국에서 일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고생하고 차별을 당해서 한국인을 보자마자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때 마음먹었어요. 죽어가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살아난 것처럼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살리겠다고요. 두 번 다시는 한국에 온 이주민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 시간만 나면 이주민들을 찾아다녔다. 일하던 선교단체가 없어진 뒤로는 이주민들을 본격적으로 돕기 위해 (사)경기글로벌센터를 세웠다. 헌신적인 섬김 덕분에 창립 10년 만에 (사)경기글로벌센터는 경기도 부근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일 년에 이주민 2,500여명 정도가 저희 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비자를 갱신하거나, 귀화, 영주권 취득, 장기 체류를 하는데 꼭 필요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짧게는 반년에서 길게는 2년 반 동안 교육이 이어져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이해 등 기본 소양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교육과정이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이라면 누구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사)경기글로벌센터는 이주민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330개 센터 중에서 2번째로 많은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는 기관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주민 돌봄, 고충상담, 다문화 가정 및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 등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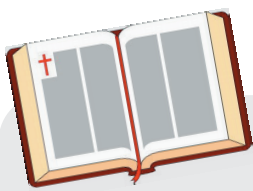
송인선 다락방장은 이주민들을 더 잘 돕기 위해 늦깎이 공부를 시작했다. 50세가 넘는 늦은 나이에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졸업했다. 지금은 인하대정책대학원에서 이민다문화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에게는 이주민을 위한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

“이주민들이 얼마나 아픈 사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주민들을 발굴하고 돌보는 사역은 필연적으로 섬겨야 할 사역입니다. 한국인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피해 있다가 옷가지를 가지러 집에 갔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절도죄로 신고한 일도 있었어요. 밀린 급여를 받고 나오는데 산재보험신청 안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안했다는 사유로 현금을 갓탈했다며 112에 신고한 고용주도 있었습니다. 의료보험 미가입 외국인이 뇌출혈로 쓰러져 생명은 구했으나 눈덩이 같이 불어난 의료비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외에도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큰일 나는 이주민들이 너무 많아요. 저와 함께 이주민들을 돕는 일에 헌신해주십시오. 성도님들의 참여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032-344-1412

후원: 신한 140-009-440818(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기획재정부지정 모금단체로서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제혜택 받을 수 있음.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에베소서 3:14~21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산을 힘들게 오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극복하며 오른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평지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고지를 향하여 힘들게 등반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필요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적당히 믿는 척 하면서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육신을 따라 살게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사도 베드로의 표현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영적 정상을 등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가리켜 성경에 나타난 진리,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문 전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어떤 말씀을 읽든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구절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느 교회에 출석하느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기쁨의 영광스러움을 깨달으며,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믿음의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에서 환경 변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갇혀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성도들이 체험하기를 기

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입니다.

영적 새 생명 ‘속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16절).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도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우리 영 안에 태어나고, 영 안에 태어난 새 생명이 자라서 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이 속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한 인격체로 자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속사람도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성장합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 겉사람처럼 속사람도 신체부분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된다고 했고,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는 ‘마디와 힘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속사람을 의미합니다. 속사람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겉사람도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출생하듯이 속사람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탄생한다는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인간에게는 세 번의 출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출생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새 생명이 출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 안에 출생한 영이 우리의 혼과 몸, 삶으로 표현되는 출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새 생명을 우리의 영 안에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 영적인 새 생명이 자라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성장합니다.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 형상의 속사람이 인격으로 성장합니다. 한 인격체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성장하는 것은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갈등하고 고민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기 원하지만 겉사람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 잉태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두 가지 저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의 저항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의 저항입니다. 외부의 저항은 사탄 마귀의 공격입니다. 사탄 마귀의 목적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만일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이 이루어진다면 역사가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저항은 우리 혼과 몸의 저항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태어난 영적 새 생명이 자라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속사람이 겉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면서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실 때 우리 영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물 받듯이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얼마나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는가와 얼마나 자신을 부인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에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 온전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지만 우리의 참여가 요구되는 것은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 새 생명에서 성인으로 자라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일서에 보면 어린아이가 있고, 아이 단계가 있고, 청년 단계가 있고, 아비 단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 성장 단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성장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롭게 태어나고, 영적으로는 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겉사람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잉태된 새 생명이 몸과 혼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귀가 음흉하고 교활하게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엄청난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지성이 강건해집니다. 지성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의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정도 강건해지는데 이것은 두려움과 상상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지도 강건해지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유유부단하지 않고, 죄를 단호히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17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마음에 온전히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한다’는 표현은 계속해서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지만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 보좌에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주자(resident)로 계시지만 통치자(president)로는 계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는 있지만 지배받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지식이 머릿속에 있고, 내 마음 한 구석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주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는 까닭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온전한 주인으로 거하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며 거하시게 됩니다.

〈13면에 계속〉

기획

□□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 결혼

결혼식 준비가 아니라 부부가 될 준비를 하라!

성경적 결혼과 부부 ... 떠남과 떠나보냄 그리고 연합

결혼은 현실이다. 판타지가 아니다. 그렇기에 결혼의 주인공인 부부가 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될 준비보다 결혼식 준비에 공을 들인다. 배우자의 조건, 더 넓은 아파트, 다이아몬드 반지와 유명 디자이너의 웨딩드레스, 명품 시계, 비싸고 화려한 결혼식을 위해 거금을 쏟아 붓는다. 빛까지 내서 결혼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 크리스천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과연 성경적인 결혼일까? 부부가 되는 준비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다. 성경적 결혼과 부부 됨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결혼준비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A자매(40세)는 13년 전 상견례 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의 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못 할 뻔했기 때문이다. A자매의 어머니는 딸이 데려온 남자친구가 탐탁지 않았다. 당시 A자매는 박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유명 연구소 취직이 내정되어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직장생활을 하다 뒤늦게 대학원에 입학해서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상견례 자리에서 A자매 어머니는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냐, 대학원 졸업까지 한참 남았는데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릴 것이냐, 예단은 얼마나 할 수 있느냐 등을 물으면서 사위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시어머니가 전셋집을 마련해주겠다고 했지만 A자매 어머니 성에 안 찼다. 어찌어찌 결혼은 했지만 수년 동안 눈치를 봐야 했다.

#B자매(39세)는 지난해 엄마가 소개해 준 남자와 결혼했다. 그녀의 남편은 엄마 친구의 아들이다. 솔직히 예전 같았으면 만나지 않았을 조건이었지만 남들 다 하는 결혼을 자기만 못하는 게 아닌지 걱정 돼서 소개팅에 나갔다.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양가 어른들, 특히 엄마들 사이에서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 결혼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신혼여행지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

“저 혼자만 결혼 못하고 나이만 먹는 것 같아서 초조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친구 아들 소개시켜준다고 했을 때 받아들였어요. 솔직히 설레는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흔 전에 결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결혼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사랑해서,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결혼할 나이가 돼서,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부모의 권유 등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81세이고, 지난해 결혼한 부부의 초혼연령이 남자 32.8세, 여자 30.1세(2016년 통계청)이다. 부부가 자그마치 50여 년을 함께 살아야 한다.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부부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준비되지 않은 결혼은 부부 간 불화를 만들고, 그 수준이 심각하면 이혼으로까지 이어진다. 지난해 우리나라 신혼부부(결혼 9년 이하) 이혼율이 전체 이혼율의 무려 42.1%(4년 이하 22.9%, 5~9년 이하 19.2%)를 차지했다. 이혼한 10커플 중 4커플이 신혼부부라는 뜻이다.

어느 영화제목처럼 결혼은 미친 짓일까? 성경은 단언컨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강조하긴 했지만, 결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은 크나큰 신비이며, 올바른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엡 5:31~32).

결혼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간에게 주신 제도이자 선물이다. 말로 형용 못할 큰 신비이며 존엄한 일이기에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부부 됨을 준비해야 한다.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다면
부부는 부모로부터 떠나야 하고
서로 연합하고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부모는 새 출발하는 자녀를 놓아줘야해”

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창 2:18, 22, 24).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만드셨다. 이처럼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한발 더 나아가는 결혼의 정의까지 내리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4~6).

예수님은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자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강조하셨다. 더 나아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누지 못할 것이라는 결혼관까지 가르쳐주셨다.

그러나 많은 예비부부들이 부부가 될 준비보다 배우자의 조건, 신혼집, 혼수, 예물과 예단, 예식장, 신혼여행지, 스텝(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웨딩패키지)에 집중하고 거액을 쏟아 붓는다. 웨딩컨설팅 ‘듀오월드’가 조사한 ‘2017 결혼비용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부부가 결혼하는데 2억6천만 원(신혼집 1억8천640만 원, 예식장 1천905만 원, 예물 1798만 원, 예단 1767만 원, 혼수용품 1417만 원, 신혼여행 496만 원, 스텝 패키지 309만 원)정도가 든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큰 비용을 쓰며 결혼한 당사자 65.3%가 “만약 다시 결혼한다면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예물과 예단(70.4%)이 가장 후회된다고 답했다.

흔히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한다. 혹은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현실이다.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렇기에 결혼식 준비보다 부부가 될 준비를 해야 한다. 성경적 부부가 되도록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 방

법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 예수님,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라는 말씀에 해답이 있다. 먼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떠나야 한다. 정신적, 경제적, 인격적 독립을 해야 한다.

둘째,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야 한다. 연합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다. ‘밀착하다, 굳게 결합하다’는 의미다. 아교로 붙이듯이 견고하게 서로 접합한 상태를 말한다. 중요한 것은 부부 연합의 접착제는 하나님이라는 점이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창조할 때 더욱 온전하고 굳게 연합할 수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신랑)와 성도(신부)가 연합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셋째,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육체적인 연합을 통해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이 부부다. 그렇기에 간음과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며, 이를 거스르면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 13:4).

부부의 하나 됨에는 상호존중도 포함되어 있다. 개개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들이다. 따라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해야 한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엡 5:33).

부모의 역할도 크다. 새 출발하는 자녀를 놓아줘야 한다. 더 이상 품안의 자식이 아님을 인정하고, 마음과 기도로 지지해 줘야 한다.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평생에 한번뿐이라며 사치스럽게 예식장과 예복을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하나 되는 준비이다. 하나님이 정의하신 결혼관과 부부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것부터 부부가 되는 준비가 시작된다. 행복한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준비하고 고백하자.

“당신은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입니다. 당신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겠습니다.”

자녀양육의 완성은 떠나보냄!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고,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기고



최승구 목사
(가정사역공동체)

가정 제도는 결혼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창 2:24).

여기에 결혼의 원리 세 가지가 함축되어 있다. 첫째 부모를 떠남이다. 떠남이란 갈비뼈를 회복하는 일이고, 회복 후에는 부모와의 관계보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우선됨을 의미한다.

둘째, 아내와의 연합이다. 여기서 ‘연합’이란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생존한다”(신 4:4)는 말씀에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이다. 인격적, 영적 연합을 의미한다.

셋째, 한 몸 이룸이다. 한 몸 이룸은 육체적 연합의 신비이다. 배타적 친밀감을 통한 남성됨과 여성됨의 완성이다. 율법에서 간음에 대한 처벌이 죽음인 이유도 부부가 한 몸 됨을 찢은 것이 되기 때문에 살인과 같이 취급한다.

“하나님이 찢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재물, 학력, 외모, 신앙 등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만난다면 결혼생활에서 충돌이 빚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결혼 후 한쪽이 다른 한쪽에 영향력을 끼침으로 배우자의 가치관이 변할 수 있다. 불신자와 결혼한 성도의 책임이 큰 이유이기도 하다.

부모의 책임은 건강한 가치관 전수에 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오직 예수’이며 ‘믿음’ 인지를 알려줘야 한다.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고, 인격화되도록 본을 보이며 가르쳐야 한다. 이는 필요한 영적 훈련을 쌓는 일이기도 하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쉽게 눈에 들어오지만 영적인 요소들은 한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짚어 주셨음을 확인해야 한다.

자녀를 떠나보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자녀도 마찬가지다.

떠나보냄은 마치 선교사 훈련을 마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파송하는 부모 측이 잘 준비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부모의 떠나보냄’을 배워야 한다

첫째, 부모들은 자녀세대의 문화를 배워야 한다. 세상 문화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각종 드라마나 연예 프로그램을 통한 감성중심의 문화 속에서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느끼며 대화하면서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돕는 문화를 선별해내고, 자녀와 함께 나눠야 한다.

둘째, 경제에 관해 배워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이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빈손으로 남미를 보낸다. 거기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립한 자녀에게는 자본을 송금하고, 독립하지 못한 자녀는 귀국시켜 대학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많은 간증들이 있다고 사료된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도 부모의 떠나보냄의 일부이다.

셋째, 결혼 과정에 관해 배워야 한다. 혼수, 예단, 결혼예식, 주택 문제 등 결혼준비에 필요한 여러 과제들이 있다. 이런 문제들을 바른 신앙관으로 극복하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도록 배워야 한다. 부모는 신앙인으로서의 물질관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 물질중심적인 관례를 신앙중심으로 세워야 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구체적인 선언을 하는 것도 좋다.

넷째, 올바른 애착관계에 관해 배워야 한다. 자녀를 결혼시킨 후에도 부모가 떠난 자녀를 붙들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물맷돌을 빙빙 돌리면서 떠나보내지 않는 것과 같다. 물론 부모가 흔쾌히 떠나보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부모들을 위한 교육과정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떠나보냄을 위해 부모들이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떠나보낸 후에 빈 공간을 기도와 축복으로 채워야 한다.

건강한 떠남과 건강한 떠나보냄이 이뤄질 때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결혼생활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꾀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 가정사역에서는 내년에 건전한 크리스천 결혼문화를 만들기 위해 결혼부모학교(가칭)를 시작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 신혼부부가 되기 위해 결혼에 비학교를 통해 서로의 다름과 성경적인 부부생활에 대해 배우는 것처럼, 결혼하는 자녀를 온전히 떠나보내기 위해서는 부모들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의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시켜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기도 부탁드리는 바이다.

건강한 떠남과 떠나보냄

자녀세대의 문화와 경제 배우기

결혼 과정에 대해 배우기

올바른 애착관계 배우기

없다”(마 19:6).

이 세 가지 원리 중 나는 첫 번째 원리인 ‘부모를 떠남’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떠남과 떠나보냄

인생에는 크게 세 가지 떠남이 있다. 텃줄을 떠남, 부모를 떠남, 이생을 떠남이 바로 그것이다. ‘부모를 떠남’의 의미는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삶을 향한 즐거운 떠남이다. 창조의 정상적 순환이며 모든 피조물에게 필수적인 과정이다. 매일 어제를 떠나며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인간에게 부모를 떠남은 피양육자에서 양육자로, 피보호자에서 보호자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점이다. 막중한 책임감과 미지의 내일을 향한 모험이 따르는 사건이기도 하다.

물론 떠난다는 것은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다. 하지만 자녀가 잉태될 때부터 부모의 양육은 떠나보냄을 위한 것이다. 자녀들은 사춘기 때부터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떠나기 위한 준비과정에 들어간다. 그렇기에 부모들은 자녀의 떠남을 무조건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떠나보낼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부모를 안 떠나려는 자녀에게는 떠나야 할 이유(성경의 창조 원리와 결혼 제도 등)를 충분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

결혼은 가치관의 열매이다. 배우자의 선택을 통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레 19:2)는 말씀 바로 뒤에 “너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존경하다’(아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가장 먼저 부모공경을 거론하고 있다. 즉 부모의 존재란 하나님 다 음인 것이다.

자녀라는 물맷돌은 부모의 손을 떠나야 한다. 세상이라고 하는 선교지로의 파송이 되어야 한다. 건강하게 떠나보낸 물맷돌은 결국 굴리앗의 이마를 맞추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람 때문에 과녁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 성격 차이와 남녀 차이의 물이해가 불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한 몸 이룸이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소수의 사람들로 시작한 기독교가 결국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릎 꿇게 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충성심과 남다른 ‘성적 순결’ 덕분이다. 삶의 현장에 적용한 거룩 덕분이었다. 부정함과 성적 타락이 넘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트렌드를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름 받았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떠난 자녀들과 떠나보낸 부모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이며 동역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양재 시니어아카데미 10주년

꽃보다 아름다운 어르신

시니어들의 영성, 지성, 정서 지킴이



양재 시니어아카데미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꽃보다 아름다운 어르신들과 함께 해서 기쁩니다.”

양재 시니어아카데미가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축하하는 자리가 지난 11월 29일 양재

온누리교회 드림홀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해 양재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만족의 기쁨’을 주제로 어르신들께 축하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교회에 나오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해 꽃보다 아름다운 어르신들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어 즐거운 식사 시간과 놀이한마당이 펼쳐졌다. 양재 시니어아카데미를 섬기는 스태프들은 정성 가득 담은 음식을 어르신들께 대접하며 사랑과 정을 나눴다.

놀이한마당에서는 전윤희 권사가 피피리 같은 목소리로 시낭송을, 박문자 권사가 색소폰 연주를, 이은희 권사가 장구춤 등을 선보였다. 그동안 갈고닦은 장기를 선보이자 어르신들

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한현숙 권사(강남B공동체)는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양재 시니어아카데미에 오셔서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재 시니어아카데미는 지난 2007년 서빙고 시니어아카데미(전 모세대학, 2009년 개칭)에서 독립했다. 올해로 꼭 10주년이 됐다. 시니어아카데미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이다. 말씀을 통해 영성을 함양하고, 한국 근대사와 교회사 등을 배우면서 지성을 기르고, 건강실기, 감사의 힘, 문화 산책 등을 통해 정서적 건강도 챙기는 일석삼초 프로그램이다. 어르신들의 친목교제의 장(場)으로도 각광 받고 있다. 문의: 02-570-7311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10주년 축하메시지

“기쁨의 창구이자 예배 처소”

양재 시니어아카데미는 어르신들의 기쁨의 창구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예배 처소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친교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재 시니어아카데미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나누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치유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이정환 목사(양재 시니어아카데미 담임)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작은 섬김에 어르신들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도 했지만, 지금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편찮으신 분들도 있고, 한 분씩 소천하시기도 해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지영 집사(양재 시니어아카데미 스태프)

“그래도 행복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버스와 전철을 타고 2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교회에 옵니다. 교회 오가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꼬박 5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옵니다. 저는 시니어아카데미를 열 번째 수강하고 있습니다. 오고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교통편을 몇 번이나 갈아타야 하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매주 수요일 받은 힘으로 일주일을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늘 성심성의껏 섬겨주시는 교회와 스태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정자 권사(양재 시니어아카데미 장기수강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양재 시니어아카데미가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시니어아카데미는 참 귀한 공동체입니다. 시니어들이 말씀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살고, 믿음을 자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시니어아카데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행복하게 말씀을 듣고,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의재 권사(양재 시니어아카데미 장기수강생)

장로칼럼

더없이 큰 신앙적·교육적 잠재 자산



백승웅 장로
(양재 시니어아카데미 담임)

양재 온누리교회 지하1층 드림홀. 매주 수요일이면 이곳은 활기가 넘쳐 흐른다. 70세를 지나 80대 중반까지의 시니어들의 반듯하고 고운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사회(전 인구의 65세 이상자가 14%에 달함)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미래와 꿈을 발견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잠 16:31).

지난 2007년 3월 이 말씀을 따라 양재 시니어아카데미가 시작됐다. ‘건강, 경제, 고독, 소외, 상실감 등으로 고통을 느끼는 시니어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 당시 나는 영적, 정서적, 감성적, 사회적인 면까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다. 마침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진행 중이던 모세대학을 양재 캠퍼스에 적용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렇게 양재 시니어아카데미가 2007년 봄에 시작됐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과거사가 있기 마련이고, 많은 이들은 급속히 아름다운 추억을 돌이켜 보기를 좋아한다. 시니어들은 값지고 보람된 시간들을 원한다. 불확실한 미래를 멋있게 살아가려는 소망과 계획도 갖고 있다. 시니어들의 이러한 바람들을 실현해가기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다.

우선 시니어(65세 이상)들을 대상으로 안정된 예배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착안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 수고해주신 유선식, 최승규, 김성원, 정재욱, 이정환 목사님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 예배공동체 다음으로 중점을 둔 것은 평생학습에 준하는 교양 및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해 전문 강사 섭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이다. 자타의 추천과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저명한 분들을 초청했다. 또한 사진촬영, 영화·연극 감상, 합창, 여행, 악기 연주 등과 같은 소그룹 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경을 넓혀가도록 커리큘럼을 조정했다. 건전한 오락과 놀이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서 건강한 생활로 연결되도록 배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개인적인 특기와 전문 지식들을 발표하도록 기회도 드렸다. 그렇게 어르신들이 각자의 존재감을 표출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독려했다. 이렇게 알찬 일들을 추진해오는 과정에는 스태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치, 유머와 열정들이 숨겨져 있다.

시니어들은 이 나라 근대사에서 민족적 고난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다. 남다른 삶을 살면

서 쌓은 체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나라의 독립과 건국, 6.25전쟁 등의 국난 극복과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에도 크게 공헌했다. 시니어들이야말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수많은 선교사를 열방에 파송하는 나라로 성장하기까지의 산 증인들이다. 이들의 원숙한 품위와 소망, 생각들을 잘 활용하고 계승해 간다면 더없이 큰 신앙적·교육적 잠재 자산이 될 것이다.

양재 시니어아카데미가 나라와 민족의 안위와 중흥을, 교회의 사명과 부흥을, 차세대의 교육과 꿈을 키워 가는데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어르신들이 건강과 행복한 삶을 영위해가면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믿는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한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시 71:18).

소비 VS 소비주의

소비주의는 이상숭배적 세계관이자 세속종교 탐욕에서 벗어나 절대적 선(하나님)으로 채워라

소비주의는 삶의 의미를 생산 활동이 아닌 소비 활동에서 찾는 것을 말한다. 즉 물질을 소비(消費)하는 일이 이상이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소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중 하나가 물질을 소비하는 것이다. 문제는 올바른 방법으로 소비하고 있느냐이다. 정운오 장로(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소비주의가 무엇이고, 크리스천을 위한 올바른 소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정운오 장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은 물질을 소비하지 않고는 유지되거나 온전해질 수 없다. 인간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소비는 인간성(humanity)의 일부이다. 생물은 그 자체로 선(good)한 것이라고 전제하는 한 그것을 유지하고 온전하게 하는 물질의 소비 역시 그 목적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선한 것이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소비가 인류의 타락 이후 자본주의 체제의 변영과 함께 ‘소비주의’로 전락하였다.

소비주의란 상대적 선에 불과한 ‘물질의 소비’를 절대적 선으로 여겨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이러한 변질된 행동양식이 고착화되어 ‘물질의 소유와 소비’가 인간의 모든 필요(영적 필요까지 포함하는)를 채울 수 있다는 세계관으로 발전된 것이다. 팀 켈러는 “상대적으로만 좋고 선한 것이 절대화 혹은 신격화 된 것이 이상”이라 말한다. 이러한 이상의 정의를 따른다면 소비주의는 이상숭배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소비를 통한 물질적 충족이 구원의 핵심이 되는 세속종교(paganism)라고 말할 수도 있다.

소비주의의 잘못된 교리

소비주의라고 하는 세속종교가 전달하는 잘못된 교리(혹은 메시지)를 살펴보자.

첫 번째 잘못된 교리는 물질의 소비와 소유가 곧 삶의 의미와 만족이라는 것이다. 소비와 소유가 어느 정도는 삶의 만족과 의미를 줄 수 있다. 굶주림이나 추위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소유와 소비가 그 자체로서 삶의 의미가 되거나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한다면 그 소비는 영적 차원의 이슈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은밀한 교리는 기업광고에 곧잘 나타난다. 예컨대 값싼 은 반지를 주는 것보다 고가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는 것이 상대방을 향한 더 큰 사랑을 의미한다는 식의 광고가 그것이다.

두 번째 잘못된 교리는 부(富, 돈)의 축적을 통해 다양한 파워를 소유하라는 것이다. 부는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파워를 제공한다. 먼저, 부는 경제적 선택권의 확장을 통한 경제적 자유를 줌으로써 경제적 파워를 제공한다. 돈이 있는 사람은 언

제든 원하는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러한 선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경제적 파워 외에도 돈은 인생의 불확실성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심리적 파워를 제공한다. 돈으로 각종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노후를 대비한 저축도 가능하다. 또한 부는 사회적 파워도 제공한다. 부는 타인이 우리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규정하는 결정적 기준이 된다. 이로써 부자들은 높은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누린다.

세 번째 잘못된 교리는 더 소비할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기본적인 생존욕구를 충족하는 수준 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애를 쓴다. 가난한 사람은 소비주의에 빠지지 않을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가질려는 지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들 또

정책으로 악명이 높았다.

소비주의 문제점과 해결방법

이러한 소비주의의 문제점은 자명하다. 소비주의의 첫 번째 문제점은 인간의 다양한 필요를 환원주의 방식으로 정의한다. 환원주의(reductionism)란 다양한 차원의 문제를 한두 개 차원의 문제로 지나치게 축소하는(즉, 환원하는) 사고방식을 일컫는다. 소비주의가 환원주의적인 이유는 삶의 다양한 욕구와 의미들을 물질(돈, 부)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으로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환원주의적 소비주의는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도덕적, 지적, 영적 욕구를 경제적 욕구의 충족(즉, 소비)으로 대체한다. 예컨대, 타인에게 존경받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는 부를 축적함으로써, 사랑받고자 하는 심리적

에서만 보게 한다. 관계를 위한 헌신을 낭비라고 여기는 것이다. 또 물질의 궁극적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게 만든다.

소비주의의 또 다른 문제점은 매우 실제적이다. ‘과소비 바이러스(Affluenza: affluent(풍요)와 influenza(독감바이러스)의 합성어)’를 전파한다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50년 간 미국인들은 1950년 이전까지 전 인류가 소비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소비하였다. 이러한 과소비의 배경에는 사치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을 조장하는 세련된 광고들과 금융 자본이 있었다.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수단과 주택/자동차 담보대출과 같은 금융수단을 고안하여 소비자들이 사치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을 지탱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이러한 금융수단은 ‘지금 소비하고 나중에 갚자(consume now, pay later)’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광범위하게 초래했고,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구조적인 빚 노예상태로 내몰았다. 더 나아가 사치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은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를 초래했고, 세계화는 저개발 국가들에게 절대빈곤 문제를 남겼다. 복음주의 진영에 속한 로잔위원회도 이러한 소비주의의 폐해를 절감하고 2010년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이를 적시하였다. 제1부에 있는 일곱 번째 신앙고백과 제2부의 행동요청을 들어보자.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 모든 창조세계를 포함하므로 ‘예수는 주’라는 복음 선포에는 이 땅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관련된 복음실천의 문제다. 창조세계에 대한 그러한 사랑은 우리가 지구의 자원들을 파괴하고 낭비하며 오염시키는 데 참여한 것, 그리고 소비주의라는 유독한(unique) 이상숭배를 묵인한 것에 대한 회개를 요구한다.”

“복음은 소비주의라는 만연한 이상숭배에 도전한다. 우리는 맘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탐욕이 빈곤을 고착시키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거부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소비주의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첫째, 소비주의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상숭배임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다. 소비주의 뒤에는 탐심이 있고, 탐심은 이상숭배이다(골 3:5; 엡 5:5). 둘째, 이상은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절대적으로 선한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만이 소비주의라는 이상에서 탈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시 23)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자.



복음은 ‘소비주의’라는 이상숭배에 도전한다.

한 소비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잘못된 교리는 사람마저도 욕구충족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이는 이전 교리들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러한 메시지는 인간을 소비재와 동격으로 취급하게 만들며, 자신과 관계하는 사람의 가치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정도에 따라서만 평가하게 만든다. 부모는 자녀의 가치를 성적표에 따라 평가하고, 회사는 직원들의 가치를 그들의 업무성과에 따라 결정해버린다. 더 나아가 욕구충족에 쓸모없게 된 것은 미련 없이 버리게 되며, 설사 그 대상이 사람이라도 폐기처분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2000년대 초 회계부정으로 파산한 거대 에너지기업인 엔론(Enron)은 매년 직원들을 성과에 따라 줄을 세운(rank) 후 하위 20%를 강제로 쫓아내는(yank) 인사

욕구는 성을 매수함으로써 충족하려 한다. 또 영생과 같은 영적 필요를 헬스클럽, 건강관리, 생명보험 등으로 대체시키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인격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비인격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의 욕구충족을 위해 사람마저 이용수단으로 보는 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배우자를 사랑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필요를 충족시켜줄 대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적자생존에서 실패한 낙오자로, 노숙자들은 사회를 더럽히는 불쾌한 대상으로만 본다. 결국 마지막으로 소비주의의 환원주의적 모습은 하나님마저 돈으로 대체해 버리는 ‘맘모니즘’의 형태로 나타난다.

소비주의의 두 번째 문제점은 성경적 세계관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 돈의 힘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인간관계를 경제적 거래의 관점

“깨어 기도하며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2017 장로장립예배 ... 신임장로 30명 장립

피택장로 30명이 은누리교회 장로로 장립됐다. 신임장로 30명은 지난 3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된 장로사관학교를 수료하고, 장로고시에 합격했다. 장로사관학교에서는 은누리교회 목회철학, 바람직한 장로상, 대표기도법, 은누리 선교, 사역지 탐방, 예수바보행전 등의 커리큘럼을 통해 은누리교회 장로로서의 소명과 역량을 훈련했다. 다음은 신임장로 30인의 장립소감(가나다순).

“담대함과 열정으로 헌신하는 장로”



김용배 장로
(브릿지33+공동체)

젊은이들이 꿈과 소망을 품기를, 미혼자에게 믿음의 가정 세워지기를, 믿는 자에게 믿음의 열정이 불타오르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에게 복음 전파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기도하며 담대하게 헌신의 자리에서 나가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박치완 장로
(서초D공동체)

길을 구하옵나니 '무엇'도 중요하지만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기도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품고 섬기는”



오시식 장로
(남양주 은누리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섬기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기억하며 은누리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겸손과 순종과 헌신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화평을 이루게 하는 중”



이중철 장로
(양재공동체)

부르신 곳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섬기는 신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게 하는 협력자,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끝자리에 서서 넘치는 영성으로”



진종우 장로
(동작공동체)

할렐루야! 교회와 열방의 중보자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 다른 중보자를 세우는 장로 되기 원합니다. 또한 모든 미진 중보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복음의 증인된 삶과 함께 공동체와 교회 안에 있는 자치고 낙심한 자제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의의의 시선”



강동수 장로
(분당A공동체)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의의의 시선을 맞추며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장로가 되길 간구합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 증인된 삶”



김준우 장로
(영등포구로공동체)

부족한 저를 장로의 과분한 직분을 주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젊은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서달석 장로
(성북공동체)

참으로 부족하고 못난 자를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기도와 말씀 안에 순종하며 부르시는 곳 어디서든 감사와 기쁨이 흘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친구같이 친근한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경호 장로
(부천 은누리교회)

장로로 세워진다는 것 또 하나의 리더가 아니라 성도의 친근하고 본이 되는 바로 그런 리더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평생 겸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장로로 사셨던 아버지의 아들로 부끄럽지 않은 겸손하고 신실한 장로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장로”



전한백 장로
(서초B공동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저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명의 준거함을 잊지 않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예수 잘 믿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위로와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최봉림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고난의 때에 시작한 장사관 때문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강의와 과제물, 사역지 탐방을 통해 하나님은 제게 필요한 메시지를 들려 주셨습니다. 주위에 고난 받는 자제들을 위로하고 있는 곳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리더십으로 굳건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강대국 장로
(강촌공동체)

삶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꾸준히 공부하며, 공동체의 약한 부분을 채우고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 장로'가 되겠습니다. 살렙!

“삶이 예배가 되는 청지기”



니영 장로
(양육본부)

부족한 중을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주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송호철 장로
(강남C공동체)

인생의 하프타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의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첫사랑을 잊지 않고 가슴에 간직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지하여 낮은 곳에서 이웃과 일터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이동욱 장로
(부천 은누리교회)

내가 장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더욱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보살피는, 세상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겸손한 장로가 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을 결단하며”



이명찬 장로
(서빙고공동체)

부족한 중을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장로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늘 감사하며 겸손히 섬기는”



이재광 장로
(대전 은누리교회)

깊은 믿음과 영성, 넓은 사랑과 섬김, 잘재된 창의력과 추진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늘 함께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사원하게 하는 장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이중우 장로
(차세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겸손히 섬기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을 성찰하고 은누리교회 비전을 깨닫는 다음세대를 잘 섬기겠습니다. 또한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



조병현 장로
(분당B공동체)

8개월에 걸친 장로사관학교 기간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를 택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치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초에 지으신 모습대로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행 6:4)하는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메신저를 소망하며”



한상규 장로
(여의도공동체)

성령의 두기동인 야긴과 보아스처럼 교회의 버팀목이 되어 은혜와 진리인 예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가슴에 품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헌신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순종하며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김광하 장로
(노원공동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즉시 순종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목회자를 존경하며, 성도를 존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예수바보행전을 써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부르심의 자리, 주님의 사랑을”



문상찬 장로
(전도본부)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웃과 형제자매를 섬기는 선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어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비전을 이루기 위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꾼”



신동기 장로
(수원 은누리교회)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참된 일꾼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늘 겸손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낮아지고 더 배우고 양보하는 장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장로”



김영환 장로
(회복사역)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영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와 그 가족들의 회복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말하기보다 듣기를 즐겨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Simple Life”



박일환 장로
(양천공동체)

바울처럼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삶, 겸손의 옷 입고 기쁨으로 공동체와 교회를 섬기는 삶, 고난과 역경이 와도 결코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삶,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삶. 이런 Simple Life를 살고 싶습니다.

“한 일의 밀알이 되어”



신선 장로
(북누리공동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드립니다. 코람 데오의 신앙으로 영적으로 소의 되고 그늘진 곳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섬기며 예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실한 예배자로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조진호 장로
(서초C공동체)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장로사관학교 과정은 삶을 성찰하고 은누리교회 비전을 깨닫는 값진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새 영으로 늘 성장하는 장로”



홍충선 장로
(수원 은누리교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고 늘 깨어 기도하며 사랑에 빛진 자로 사랑을 나누며 새 영으로 인해 늘 성장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에서, 더 열심히

지난 11월 2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 '2017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에서 440명이 임직됐다. 권사 150명(명예 권사 3명, 권사 147명), 안수집사 290명(남자 집사 89명, 여자 집사 201명)이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졌다. 김은화 권사(양지 온누리교회), 주성대 집사(동대문중랑공동체), 위성계 집사(브릿지33+공동체), 양훈재 집사(부천 온누리교회)가 임직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편집자 주

권사 임직 소감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김은화 권사
(양지 온누리교회)

임직예배 당일은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동행한 남편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임직자들이 겸손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말도, 행동도 조심하는 권사, 기도로 중보하고,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권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늦깎이 권사입니다. 원래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출석 하다가 선교를 나가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습니다.

지난해 12년 만에 귀국해서 찾은 교회가 양지 온누리교회입니다. 이웃의 작은 개척교회도 함께 섬겼습니다. “7년 된 성도는 떠나라”고 하신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

문입니다.

우리 부부가 섬기던 작은 개척교회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새신자들이 적응하기에는 교회 분위기나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딱딱했고, 성도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교회를 위해 아침저녁으로 중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권사임직을 받으면서 목사님이 목회를 생각하는 관점이나,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권사임직을 받은 것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임직자스쿨에 참여할 때만 해도 ‘순서가 돼서 권사가 되나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임직예배에서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권사 임직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섬기는 권사가 되겠습니다.

안수집사 임직 소감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주성대 집사
(동대문중랑공동체)

저는 2010년 온누리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때가 제 삶의 전환점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주님과 멀어졌고, 20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아내와의 갈등, 사업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던 해에 우리 부부가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새롭게 배워가는 마음으로 새신자 교육부터 차근차근 밝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부활절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삶을 진심으로 회개했고, 주님을 떠났던 20년의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열심히 섬기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저를 순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공동체와 순도 임도 하고, OBC 등 온누리교회의 교육 과정들

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감격스럽게도 아내와 함께 안수집사라는 과분한 직분까지 받게 하셨습니다.

공동체 식구들의 축복에 감격했습니다. 무척 기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 행위의 흠결을 지적당해도 한 사람의 실수로 치부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수집사라는 직함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나의 실수가 용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 집사라는 자가 왜 저래?”라는 비난을 하게 만들면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도 흠집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 삶이 전도가 되고,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의 무게는 더 낮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겠습니다. 교회와 이웃, 소외된 자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안수집사 임직 소감

“그때 그 집사님처럼”



위성계 집사
(브릿지33+공동체)

저는 세상의 즐거움을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자연 속에서 온갖 스포츠와 레저, 예술적 여가 등을 즐기는 것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험한 산길을 걷던 중에 문득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귀하지만 하찮게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현실이라면 죽음 이후는 어떤 것이지?”

죽음에 관해 의문이 들면서 사람이 이 땅에 오고 가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의 소개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3년 전입니다. 제 나이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출석했을 때 저를 인도해주시

고 양육해주셨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퇴근이 늦는 저를 위해 수개월 동안 늦은 밤에 시간을 내어 양육해주셨습니다. 시간과 정성, 물질로 물심양면 섬겨주신 이유를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집사님이 시간과 여유가 돼서 이런 봉사를 하는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제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나를 섬겨주신 집사님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열정과 태도가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너무 부족한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안수집사 임직을 받고나서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진심과 열정으로 헌신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과 예배의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부족한 저의 영적 성장을 이끌어준 온누리교회와 브릿지33+공동체 지체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수집사 임직 소감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양훈재 집사
(부천 온누리교회)

사실 안수집사 직분을 받기에는 제 자신이 부족하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여전히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담감을 가지고 임직자스쿨을 신청했는데 내 몸에 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내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두려움과 서러움이 몰려와 밤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과 공동체에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사 41:10)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시작하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공동체 식구들은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퇴원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중보기도와 격려, 위문을 해주셨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얻었고,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이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팔을 살리셨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셨다는 것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임직예배에도 참석하셔서 딸의 안수집사 임직을 축하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고백과 축하로 인해 임직의 기쁨과 감동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낙담을 소망으로 변화시키고, 내 삶을 영원까지 지키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격려해주신 공동체 식구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겸손, 순종, 헌신하는 장로되겠습니다”

2017 장로장립예배 … 신임장로 30명 장립



2017 장로장립예배에서 세족식을 하고 있다.

신임장로 30명이 장립됐다. 어제(2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2017 장로장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교계인사, 온누리교회 리더십, 성도와 가족, 지인 등이 참석해 신임장로 장립을 축하하고 축복했다.

2017 장로장립예배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당회서기 이철 장로의 대표기도, 장로합창단 특송, 이성희 목사(연동교회 담임, 증경총회장)의 설교, 오이식 신임장로 간증, 2부는 서약, 세족식, 안수기도 및 선포, 김영길 장로 축사, 지용석 목사(영양남노회 노회장) 권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당회서기 이철 장로는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겸손한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이성희 목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사랑과 겸손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 전체를 아우르면서 섬기는 장로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신임장로 오이식 장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에 겸손, 순종, 헌신하는 장

로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길 장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장로가 되길 바란다”며 후배 장로들을 격려했다. 지용석 목사는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신 목적이 있다”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기도하는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돌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신임 장로들은 지난 3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어진 장로사관학교를 수료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크리스천 결혼문화 포럼’ 개최

가정사역, 성경적 결혼문화 창출 논의

지난 11월 25일 양재 온누리교회 온유홀에서 가정사역공동체가 주관한 ‘크리스천 결혼문화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허례허식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현재의 결혼예식문화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올바른 성경적 결혼문화 창출을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토크쇼와 조별토의 및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떠나보냄’, ‘배우자 선택’, ‘결혼준비’, ‘손자 돌봄’ 등을 주제로 정대서

장로(푸른누리공동체), 김인선 장로(송파공동체), 문장혜 권사(강서공동체), 조성환 장로(가정사역공동체 대표장로)가 주제별 발표를 했다.

조성환 장로는 “지속적으로 포럼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최해서 긍정적이고 건전한 크리스천 결혼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고, 이동훈 목사(가정사역본부장)는 “올바른 크리스천 결혼문화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장애인과 어르신께 발마사지 봉사

CMN 양재 발마사지 지원팀 14명 참석

CMN 양재 발마사지 지원팀이 지난달 15일 양재1동 주민센터에서 우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과 어르신 40여 명에게 발마사지 봉사를 했다. 이날 CMN 발마사지 지원팀 소속 14명은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의 발을 정성껏 씻기고 마사지를 했다. 새 양말과 다과테이블은 덤이었다. 김영옥 어르신(75세)은 “사랑을 담아 친절하게 발마사지를 해주

시는 모습을 보고 감격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교회에 나가보려고 한다”고 고백했다.

바우뢰복지문화회관 이성철 사회복지사는 “발달장애인들 중에는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주민센터까지 오셔서 발마사지 봉사를 해주신 CMN 양재 발마사지 지원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 이소정 기자

풍성한 전도축제 이어진다

인천 여성사역(6일), 국제부(9일), 강동(10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집회가 풍성하게 이어지고 있다. 강서공동체는 지난 11월 24일 온누리 기독교문화전시장에서 전도집회 ‘Bravo your life’를 개최했다. 전도대상자 33명이 참석해 14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인천 온누리교회와 강동 온누리교회가 준비한 전도집회도 막 오른다. 인천 여성사역은 12월 6일 오전 10시 30분 송도 프리페이스 3층에서 ‘천상의 소리와 함께하는 전도

집회’를 열고, 인천 몽골어예배와 중국어예배에서는 12월 9일 송도 제너섬 8층에서 ‘국제예배 전도축제’를 개최한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믿지 않는 부모님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전도집회 ‘온리 유’를 12월 10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진행된다. 배우 오미희, 샌디애니메이션작가 박진아 등이 게스트로 출연하고, 노치형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담임)가 메시지를 전한다.

몽골 최초 기독교병원 아가페병원 후원콘서트

몽골 최초의 기독교병원인 아가페병원 후원콘서트 ‘드림 몽골리아’가 지난 11월 25일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2016년 설립된 몽골 최초의 기독교병원인 아가페병원을 후원하고,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는 종합병원으로의 확장과 기독교의 설립 등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이었다. 혈액투석과 호스피스 전문으로 하는 아

가페병원은 지난 8월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병동을 분리하고 각각 하용조 목사 기념 투석센터와 심재학 기념 호스피스 병원으로 봉헌했다.

아가페병원 설립자 박관태 선교사(두란노해외선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병원, 기독교 의료인 양성을 위한 기독교 의대 건립의 꿈을 위해 달려갔다”고 비전을 밝혔다.

계좌: 하나은행

586-911044-16037 아가페병원

더멋진세상 창립 7주년 감사예배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이 창립 7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12월 4일(월)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진행된다. 올해 NGO 더멋진세상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하는 등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문의: 02-2271-2248

아트비전, 사진전

온누리교회 미술인 선교회 아트비전이 오는 12월 10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1층에서 이승환 교수(아주대) 초청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초청전시회는 이승환 교수가 찍은 그랜드, 자이언 캐니언을 담은 사진을 전시한다.



“열방에 영향 끼치는 장로들”

4차 장로아카데미 39명 수료

장로 39명이 4차 장로아카데미를 수료했다. 19명이 개근상, 참가자 전원이 성경1독 통독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28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4차 장로아카데미 종강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유재홍 장로의 찬양, 박찬빈 장로의 기도, 이재훈 담임목사의 말씀, 수료식, 정과종 장로의 축사, 안동혁 장로의 축하 연주, 조별 나눔, 축복과 선물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격려함으로 사람을 세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동역자와 진실된 마음을 나누는 요나단 같은 영성을 품기를 바란다”고 축복했고, 정과종 장로는 “지금처럼 자만을 이기는 겸손과 정제된 마음을 이기는 열정만 있다면 열방에 영향을 끼치는 장로들이 될 줄로 믿는다”고 축하했다.

/ 이소정 기자

■ 한국어선교학교 수료 간증



/ 김원석 성도(강동 온누리교회)

나는 한국어 선교사

어느덧 50세가 넘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잘 투자해서 앞으로 더욱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어디든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고 싶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한국어 선생님 관련 기사를 보면서 한국어가 필요한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국어 공부할하기로 결심했다. 50대에 학교에 간다는 것이 가능할지 망설여졌지만 무작정 사이버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에 등록했다.

회사와 집안 문제 등을 생각했다면 시작조차 못했을 것이다. 학교를 수료한 뒤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였다. 그때 한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아시아 힐링캠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등록했다. 그렇게 나와 시간이 맞는 일본인과 연결이 되었다. 그 일본인은 한국에 업무 차 방문해서 3년 동안 체류할 예정이었다. 한국에 온 김에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을 체험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배운 것을 적용하려니 막막했다. “알아보고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

그즈음 한국어선교학교가 개강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과 비전을 품고 한국어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내가 설명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강사님도 고민하신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막대사탕 발음 이해법’이 그것이었다. 막대 사탕을 입에 넣고 발음해 보면 혀의 움직임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 방법을 일본인에게 적용했더니 신기해하면서 금방 따라했다. 일본인에게 약국에 가서 음료수 두 병을 한국말로 구입하기, 과일가게에서 가격을 물어보고 사오기 등의 숙제도 났다. 일본인 스스로 숙제를 하고 나서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모른다.

이제는 한국어를 통해 외국인들 영적 제자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얼마 전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외국인 어린이들에게 한글 받아쓰기를 가르쳐줄 교사를 모집한다는 메시지를 보고 내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른다. 열른 외국인 어린이들을 만나고 싶은 설렘에 메일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이 마음조차 주님이 주신 준 것임을 믿는다. 주님께서 한국어선교학교를 통해 새로운 선교를 준비하시고 훈련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든다.

■ 양재 차세대 교사 간증



/ 신현기 교사(양재 중등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듯이

지난 11월 12일 양재 중등부 3학년 학생들과 함께 춘천으로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itx 청춘열차를 타고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주님께서 운전하시는 사랑호 구원열차에 탑승한 기분이 들었다. 예배당처럼 악기, 영상, 음향은 없었지만 그 순간 자체가 은혜로웠다. 하나님께서도 화려한 예배보다 열차에서 드린 진실 된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는다. 예배드리는데 장소가 중요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한창 뛰어놀 나이인 청소년들이 입시지옥에 빠져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는 것 같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겨나 달려가는 것인데도 말이다. 학교 우등생이 사회 열등생이 된다는 말이 있지만 교회학교 우등생은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자리잡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청소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더욱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양재 중등부에는 청소년에 대한 사랑과 열

정이 넘치는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무척 많이 계신다. 멀리 지방에서 일하다가 주말이면 KTX를 타고 올라와서 섬기는 선생님, 해외출장이 있어도 주일 전에 돌아오시는 선생님,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매주 준비해 오시는 선생님, 이른 아침부터 묵묵히 섬기는 대학부 선생님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나 또한 방황하던 사춘기 시절이 있었다. 그때 나에게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신 선생님들을 잊지 못한다.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중등부 교사를 섬기게 되었는데 벌써 내년이면 안식년을 맞이하게 된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조금씩 지치면서 내려놓으려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는 태초부터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뭐가 힘들다고 쉴 생각을 하나”며 책망하시는 듯 했다. 앞으로는 주님이 맡기신 어린양들을 더욱 열심히 섬기려 한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듯이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 부족한 나를 교사로 섬기게 해주신 양재 중등부의 교장선생님인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남수단 난민이 보낸 편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임마누엘 오피고(파키리니야세컨트스쿨 교사)

2016년 7월, 남수단의 내전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거지를 버리고 피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간다 정부도 남수단에서 거주하는 자국민들을 피난시켰습니다. 나는 당시 마을에서 10km 떨어진 친척집으로 트럭을 몰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피난민들을 태웠는데 대부분 여자들과 아이들이었습니다. 남자라고는 아바리는 노인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쪽으로 피난을 갔고, 아카강 근처에서 군인들을 만나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를 작은 집에 가두고 고문했습니다. 뒤통수에 총을 겨누기도 했습니다.

그때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지휘관이 우리를 발견했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보내줬습니다. 그 마을을 가로질러 피난을 갔고 오전 6시 30분 우간다에 도착해서 난민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간다 아주마니 지구의 파키

리니야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난민촌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도전입니다. 우선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난민촌에서는 한달에 6kg(1인당)의 식량을 줍니다.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난민들이 하루에 한 끼씩 먹고 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비누 같은 기본적인 생활용품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는 부족하고, 학생들은 가난하고, 교사는 몇 명 없습니다. 교육받고 꿈을 꾸야 할 아이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전쟁이 끝나면 좋은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아이들이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기업을 만들고, 사회를 돕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희망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 신앙시



/ 최성원 성도(서빙고 주차사역팀)

천사 우체부

하늘의 천사 우체부는
늘 바쁘지요
할 일들이 참 많지요

땅에서 보낸 기도편지들
그분의 뜻에 따라
살피고 처리하지요

급한 건 급한 대로
바로바로 보내주고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소원은
들어주지 않지요 침묵하지요

어떤 편지에는
더 큰 것을 보내주고요
어떤 편지에는
그냥 작은 것들을 보내주지요

또 어떤 때에는
주문하지도 않은 아주
좋은 것들을 보내기도 하지요

하늘의 천사 우체부는
늘 그분이 정한
기가 막힌 순간에
정확하게 보내주지요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사랑이어야 합니다

둘째,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고 그 터가 견고해집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17~19절).

사도 바울은 뿌리 깊은 나무가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과 어떤 지진에도 건드는 건물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물체이고, 다른 하나는 무생물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견고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나무가 왜 흔들리니까. 왜 넘어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토양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기초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 뿌리내리는 토양이 사랑일 때 그 나무는 견고하게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인생에 뿌리내린 토양이 사랑이 아니면 몸은 성인이 된 것 같고, 겉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상처와 두려움과 미움과 아픔의 열매가 자라납니다. 어린 시절에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랑으로 해결해야 할 이유 또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있지만 공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까닭도 사랑입니다. 미움으로 세상을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을 끝내고, 사랑하시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끝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토양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써 우리 삶의 토양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이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습니까.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을 품을 만큼 넓습니다. 그 사랑의 길이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실 만큼 깊습니다. 높이는 우리를 건져내서 하늘에까지 이끌어 올리실 만큼 높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랑의 넓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품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이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높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인생의 토양이 바뀌게 됩니다. 미움과 상처와 두려움에 뿌리내렸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정도에까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19절).

우리의 삶을 보면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충만이 아닙니다. 충만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 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거하시며, 사랑에 뿌리내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한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 거룩함, 의로움이 우리 안에도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다운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의 모습이 흘러넘치는 자녀입니다. 겉모습만 흘러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라고 하면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자녀가 감사와 사랑뿐만이 아니라 “아빠,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한다면 그 아버지는 영광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실제로 자녀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간다면 아버지의 충만하심과 같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20~21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존 스톱트 목사님은 이 기도를 일곱 개로 구분해서 묵상했습니다.

1.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2.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실 수 있다.*
3.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하실 수 있다.*
4.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5.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hyper)하실 수 있다.*
6.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다.*
7.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마음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문화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아시나요?

평양 한가운데에서 기독교인 교수들이 북한의 수재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 그런 학교가 진짜 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이하 평양과기대)은 남한과 북한이 함께 세운 북한 최초의 국제사립대학이다. 평양과기대에는 15개국에서 온 기독교인 교수 150여 명이 500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10년부터 7년 동안 학부생 298명, 대학원생 93명을 졸업시켰다. 교수들 중에는 전유택 총장, 최세영 교수, 함경호 교수, 고동훈 교수 등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들도 여러 명 있다.

평양과기대는 한반도의 평화, 북한의 국제화 및 경제자립, 국제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다. 1992년 한중수교 직후 한국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사장 박선희)이 연변에 설립한 ‘연변과학기술대학’이 중국의 중점대학으로 성장하고, 좋은 성과를 보이자 북한이 한국에 연변과학기술대학 같은 국제대학을 설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북한에서는 평

양시에 100만㎡의 대지를 제공했고, 한국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외교포, 세계 기독교단체들이 기금을 모았다. 2001년 3월, 북한 교육성의 허가가 나고 2001년 6월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으로 건축공사가 시작되었다. 2009년 9월 개교했으며 2010년 10월 25일 첫 수업을 했다.

설립 초기에는 대학원 과정의 학교로 추진되어 정보통신공학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농업식품공학대학원 등 3개 과정이 설치되었다. 지금은 농생명식품대학, 국제금융 경영대학, 컴퓨터 통신 산업자동화 대학, 의과대학(의대, 약대, 치대, 간호대, 보건대)에서 500여 명의 학부생과 100여 명의 대학원생이 공부하고 있다. 학생들은 북한 교육성이 추천하는 최고의 인재들이다.

평양과기대는 북한에서는 파격적인 교육환경으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최고의 대학으로 꼽힌다. 개교 7년 만에 김일성대학, 김책공업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김일성대학,

김책공업대학을 나온 부모들이 자녀들은 평양과기대에 보내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 평양과기대가 북한의 다른 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너무 좋은 생활시설과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방학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평양과기대의 자랑 중 하나는 삼시세끼 따뜻한 밥과 고깃국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평양과기대의 교육환경은 여타 북한 대학과 비교할 수가 없다. 또한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 교수를 뽑을 때도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없으면 안 된다. 학생들이 외국어가 능통해지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브라질 등지로 유학 및 연수를 나간 사례가 80건이 넘는다.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실습 장비, 교보제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난다. 다른 치과대학에서는 실습한 못 해보고 졸업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평양과기대에서는 최신형 치과시설에서 실습을 시키고 있다.

사실 평양과기대 교수들은 선교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평양과기대 교수의 채용 조건만 봐도 알 수 있다. 조건은 세 가지인데, 첫째 기독교인이어야 하고, 둘째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하고, 셋째는 자비량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교수들이 학생들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4년 동안 부대끼며 생활하는 것 자체가 선교가 아니면 무엇이 선교란 말인가.

어려움도 있다. 대학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양과기대 전유택 총장은 “내년에도 학교를 운영하려면 최소 12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후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평양과기대는 외교, 안보, 군사적 대립에도 교육을 기반으로 남한과 북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평양과기대가 통일의 마중물이자 북한 복음화의 쐬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후원문의:

Acts 29

게시판

14 온누리신문

2017년 12월 3일(주일) | 제1174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남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차세대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페르시아어 주일 13:30 본관 5층 미션다락방

안산M센터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Peace 302 / 다문화 애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국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국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 열방예배 주일 9:00 301 / 네팔

어 주일 9:00 302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틀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9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신관 4층 누리를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묘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치)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OEM한국어교실 봉사자(교사)모집

날짜: 매주 토요일(계절방학 있음)

서류: 간단한 자기소개와 신앙간증문

자격: 온누리등록교인, 일대일 수료자

문의: korean@onnurienglish.org

주일 7부 예배 콰이어 모집

연습: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자격: 온누리교회 등록 및 세례교인

문의: 박근범 전도사(010-4939-2627)

CMN 드림팀 해외 아웃리치 모집

일시: 18년 2월 14일~19일

장소: 인도네시아 팔렘방(회비 135만원)

모집: 의사, 약사, 간호사, 치위생사, 의료봉

사 관심자 등

문의: 010-4230-1474, 010-2586-5447

온누리남성선교합창단 단원 모집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을

준비: 찬송가 1곡(자유곡)

문의: 신용환 총무(010-8695-8341)

합창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ommcnkr) 참조바랍니다

CMN 라파팀 악사 봉사자 모집

일시: 둘째 주일 오후 4시~6시

내용: 서빙고 M미션 외국인 진료

문의: 심형식 팀장(010-3227-9915)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미니콘

크리스천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신앙공감이야기

두근두근 마카롱 시즌4



더 재미있고 달콤한 이야기로 돌아온 시즌4!

로켓리스트 (12월 2일)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 상상해보는 로또당첨. 평범한 신혼부부인 현범과 한나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볼빨간 취준기_취뽕꿀팁 (12월 9일)

취업준비를 시작한 가희는 앞날이 막막하기만 하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은 뭘까?”

씬앤쌔 과거탐구생활 (12월 16일)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된 가희. 어색한 교회동생 재현과 오랜만에 마주치게 되는데...

Black Christmas (12월 23일)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던 현범과 한나가 뜻밖의 사건을 겪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

12월 2일부터 페이스북 '노크'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KNOCK

<두근두근 마카롱>
시즌4 및 전 시즌
다시보기